

6자회담 내달 8일 중국서 개최

라이스 미국무 "검증 의정서 추인이 주 의제"

북한의 비핵화 관련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6자회담이 내달 8일 중국에서 개최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리마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개최 시기를 공개하고,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정권이양기에 들어선 만큼 Barack Obama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높이는 시간끌기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여 현 단계에서 회담의 성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북한은 이미 지난 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현안인 북핵 검증과 관련, "검증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면서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부시 행정부와의 마지막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일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개성공단도 상주인원 축소...對南 압박 강화

■北 남북교류 중단 선언

정부, 당혹 속 6·15 선언 협의 재개 촉구

북한이 12월1일부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 사업의 사실상 중단을 의미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24일 밝힘에 따라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북측은 개성공단 사업건을 제외한 모든 남북간의 인적 왕래를 원칙적으로 전면 차단하는 한편 자신들에게 정기적인 달러 수입을 보장해준던 개성관광까지 스스로 끊기로 했다.

비록 물자수송 및 수송 관련 인원의 왕래는 선별 허용키로 한다지만 북한이 이날 발표한 조치들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 기존 교류협력에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이미 당국간 대화가 차단된 상황에서 명백을 유지하던 민간 교류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다만 북한은 개성공단만은 상주인력 감축 등 1차적인 압박 조치만 취한 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공단에 근무하는 3만5천여 북측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문제와 공단 중단시 미칠 대외적 이미지 손상 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단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대화에 나올 것을 북에 재차 촉구했다.

또 '6·15, 10·4선언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이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이 워낙 완고한 상황에서 12월1일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예고된 조치의 이행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면담을 요청한 24일 오전 입주기업 대표들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북한의 입장들은 우리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 정책 전환이 없는 한 남북관계 복원을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연합뉴스

한·미 FTA 연내 처리 불투명

의원 방미단 이견 재확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방미단이 일주일간 미국내 분위기를 탐색하고 23일 귀국했지만 여야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국은 금융위기, 이라크 및 아프간 사태, 북핵 문제 때문에 FTA를 우선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하지만 한국이 먼저 비준한다는 데 반대하는 인사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저희가 만난

모든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미 FTA는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금융위기 등으로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나 논의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우리가 얘기를 꺼내니까 답하는 것이지 미국은 한미 FTA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별도 특위구성을 통한 재논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외통위 상정에도 응할 수 없다는 게 문의 의원의 생각이다. /연합뉴스

국방부 "병력 50만으로 감축" 속도 조절

국방개혁 조정안...첨단 전력 확보와 연계

수방사, 군단급 부대로 개편...제방시 해체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려는 군의 계획이 일부 조정되고 부대구조 개편 시기도 늦춰진다.

국방부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2008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그간 수정작업을 진행해온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조정 초안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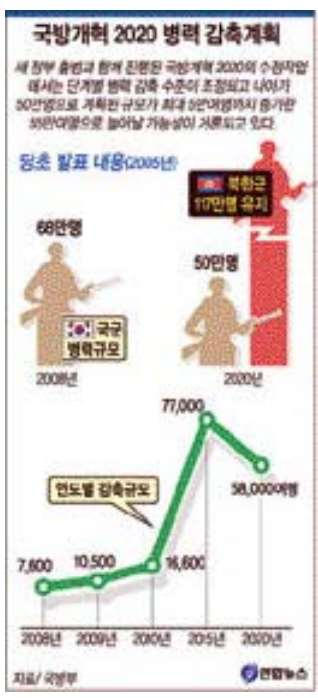
국방부는 조정안에서 "개혁 추진과정에서 북한군 위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병력 감축 규모와 부대해체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력 감축 계획은 장기계획에 가깝고 큰 계획의 틀에서 목표상 제기된 것일 뿐 상황 평가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력 50만명 감축계획은 "정원 목표치에 불과하다"면서 "감축계획이 개혁 초반기에 집중됐는데 앞으로 이를 완만하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는 "국방개혁기본법에는 '50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50만명이란 단적인 표현은 없다"고 말해 50만~55만명 사이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육·해·공군의 부대구조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육군은 수도방위사령부를 지역 군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현재 8개 인 군단을 7개(군단 5개, 기동군단 2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방사가 지역 군단급 부대로 개편되면 포병전력과 기동전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부대명칭은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대신 수도군단은 해체된다.

육군은 앞으로 중·고고도 무인 항공기(UAV)와 K-1 전차, 성능이 개량된 K1A1 전차, 한국형 기동헬기(KAH)로 무장하게 된다. 북한군의 특수부대와 전자부대에 대응하는 기동군단에는 앞으로 양산되는 600여대의 K-2 차기전차가 배치될 예정이다.

해군은 인건·제주해역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동전단이 창설된다. 이에 따라 작전사령부와 1.2.3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해병대는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는 대신 백령부대와 제주부대를 창설하고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미봉남」 용어, 이제는 폐기돼야

李 대통령 "연말 개각·경제부총리제 신설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한국시각 24일) "미국의 신(新)정부도 6자회담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일이 이뤄질 것 같으며 (6자회담에) 진전이 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이 버락 오바마 신정부가 직접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든, 또 어떤 조치를 취하든 한국과 사전에 충분한 교류와 합의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로 이동하는 대통령특별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통미봉남이라는 용어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문제가 지금은 좀 어색하고 냉랭하지만 정부는 일관성있게 진정으로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북한과의 화해, 공동번영, 상생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움직임에 대해 "성과가 보장돼야 하고 우리와 충분한 협의가 있는 다음에 고려할 문제로 오바마 당선인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연말·연초 개각설과 관련, "장관 한 명 바뀌어서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면 매일 바꾸겠지만 이제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에 걸맞은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관(해외) 나가서 일하는데 국내에서 바뀌라고 계속 보도하면 매일 바꾸겠지만 이제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에 걸맞은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1주년 기념행사

여수 세계불꽃경연대회

2008. 11. 26(수) 18:30~20:30 (신남발전공원)

2008. 11. 26(수) 08:30~16:00 (진남발전공원)

제10회 여수시민체육대회 및 화합 한마당

2008. 11. 26(수) 16:00~18:00 (신남발전공원)

신협은행과 함께 하는 여수시민 음악회

2008. 11. 26(수) 16:00~18:00 (신남발전공원)